

보도시점
(엠바고)2026. 7. 14.(화)
배포 후 즉시 사용

배 포 일

2026. 7. 14.(화)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형 데이터·AI 기반 K-복지 모델 배운다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 대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 사례 공유 데이터·AI 기반 복지행정 노하우 소개하며 국제협력 기반 마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7월 13일(월),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주관하는 2026년 베트남 공무원 초청 연수 과정인 「현대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응우옌 타인 쉐언(Nguyen Thanh Xuan) 호치민시 부서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명이 참석했다.

*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the context of Modern Urban Development

이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정보화 사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디지털돌봄시스템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복지 대상자 자격·이력 관리, 전국 보건기관 업무 연계, 독거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지원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운영 경험을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호치민시 공무원들이 한국의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데이터 연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협력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

응우옌 타인 쭈언 호치민시 부서기장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를 구현한 한국의 경험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연수는 베트남 사회보장 서비스 품질과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축적해 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베트남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사진 설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들과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연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본부	경영기획본부	책임자	김정수 본부장	02-6360-6060
담당부서	기획총괄부	담당자	임효경 부 장	02-6360-6061